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모세 에디오피아의 수사

마태오 제 11주일

성모 안식 축일 종례일

성 이리네오스 주교순교자

제 2조, 조과복음 11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제 2조 부활찬양송 / 81, A 212

•주일 입당송 / 14, A 42

•성모 안식 축일 찬양송 / 181, B 188

•성당 찬양송

•성모 안식 축일 시기송 / 181, B 191

•사도경 : 필립비 2:5~11 / 181, 봉독서 556

•복음경 : 루가 10:38~42, 11:27~28 / 182, B 46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주는 구원의 말씀

성 모세 에디오피아의 수사

골고타 언덕의 십자가에서 회개한 강도가 구원을 받은 마지막 사람이 아닙니다. 그 때부터 수많은 죄인들과 강도들이 “주여, 저를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루가23:42)라고 진정으로 회개하여 구원을 찾았습니다. 이러한 사람 중의 한 명이 우리 교회에서 8월 28일 축일로 기념하는 성 모세 에디오피아인 수사입니다. 하느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이러한 목적 때문입니다. 즉, 죄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교회는 어떤 다른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을 영원히 계속해나가는 곳입니다. 그리스도는 죄 많은 세리들을 사도들로 만드셨고, 교회는 죄인들과 악인들을 성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느님의 권능이고 교회가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스도와 주님의 거룩한 뜻으로부터 어떤 거리감도 없이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매일 질병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십시오.”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십시오.”라고 말하기 전에 “자연적인 거리를 두십시오.”라고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나 다른 어떤 바이러스로도 우리 사이가 사회적, 심리적으로 멀어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보다 먼저 “서로 거리를 두십시오.”라는 구호를 들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영적으로 생각하도록 합시다. : “우리는 절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거룩한 뜻과 거리를 두지 않을 것입니다.”

즉,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십시오.”라는 구호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회적 거리를 두십시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마음으로, 영적으로 친교관계를 돈독히 하세요.”라고 의미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와의 친교를 새롭게, 굳건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인 다른 사람들과의 영적 친교를 단단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온갖 나쁜 것들, 온갖 슬픔, 온갖 시련을 극복하는 확실한 믿음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족적으로

더 어려운 정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로와 함께, 경이로운 사랑의 찬가를 삶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느님만이 이유를 알고 계시는, 하느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시련을, 사랑의 찬가의 불꽃을 우리의 입술과 가슴에 새기고 나아갑시다. 우리의 입술과 가슴에 사랑의 불꽃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는 비법은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려는 생각을 멈추는 것입니다.

실천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 의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것들이지만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전염병의 확산을 멈출 수 있도록 방역지침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면 바이러스 전염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이웃들을 보호하면서 사회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널리 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책임과 참여로,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삶에 큰 충격을 주는 모든 사회적, 개인적 위기를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대주교



영적인 발전을 위한 기도
+ 에브세비오스 비티스 수도원장(1927-2009)

오, 저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여,
온 마음으로 제가 청하나이다, 제발:

존경받으려는 욕망에서 저를 자유롭게 하소서.

사랑받으려는 욕망에서 저를 자유롭게 하소서.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 주길 바라는 욕망에서 자유롭게 하소서.

영예로운 자리에 앉고 싶은 욕망에서 저를 자유롭게 하소서.

사람들에게서 찬사를 듣고 싶은 욕망에서 저를 자유롭게 하소서.

남보다 앞서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욕망에서 저를 자유롭게 하소서.

다른 이를 충고하고 싶은 욕망에서 저를 자유롭게 하소서.

남이 저를 챙겨주고 뒷바라지해주길 바라는 욕망에서 자유롭게 하소서.

창피와 망신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저를 자유롭게 하소서.

경멸과 멸시를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저를 자유롭게 하소서.

거부되고 퇴짜를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저를 자유롭게 하소서.

중상모략과 음해를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저를 자유롭게 하소서.

사람들이 저를 잊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저를 자유롭게 하소서.

모욕과 모독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저를 자유롭게 하소서.

사람들이 저를 의심하고 불신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저를 자유롭게
하소서. 아멘!

아타나시아

주보소식

대교구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지난 14일 금요일 늦은 밤에 서울시에서 수도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대해 통보해 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회에서 주일 예배 외에 어떠한 모임과 음식 제공도 제한되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서울 성당에서 준비한 15~16일 여름 프로그램이 취소가 되어 아이들이 많이 아쉬워하였습니다. 우리는 방역지침을 잘 지키면서 매일 밤 10시에 하는 15분간 기도를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하느님께서 도와주시도록 노력합니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비 피해

올해는 유난히 많은 비로 인해 전국적으로 비 피해가 많았습니다. 서울도 성 니콜라스 성당, 성 막심 성당, 대교구 사무실, 서울 성당 사무실, 지하선교회관에서 비가 새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비 피해 복구와 개선을 위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느님의 도움과 신자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인천 성 바울로 성당

➡ 세례를 축하합니다

지난 8월 15일 성모 안식 축일예배와 함께 세례성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주해온 가족의 일원으로 초등학생인 흐세니아가 세례성사와 견진

성사를 받고 정교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풍성한 축복과 다정한 사랑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부모인 안드레아와 에브도끼아 그리고 오빠 요한과 함께 오래도록 영위 하길 우리 모두 축원합니다.

전주 성모 안식 성당

➡ 성모 안식 축일

지난 8월 15일 성모 안식 축일을 맞이하여 전주 성당에서는 축일 성찬예배를 16일 주일에 드렸습니다. 15일 축일 대만과와 아르토클라시아, 16일 성찬예배와 성화행렬, 광복절 대영광식을 암브로시오스 대주교와 일라리온 정종혁 사제, 요한 박인곤 보제가 집전하였고 많은 신자들이 참여하여 축일을 경축하였습니다. 축일을 준비해주시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성모님의 보호와 중보가 항상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울산 성 디오니시오스 성당

➡ 여름 주일학교 프로그램

공지해드렸듯이 올해는 코로나19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하지 못해서 각 지역성당에서 여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울산 성 디오니시오스 성당에서는 오는 8월 28~30일까지 성당에서 주일학교 여름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여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재밌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간예식

8월 29일(토) 세례자 요한의 참수 기념일
오전 9시 - 축일조과 및 성찬예배

